“연등회 인류무형유산 등재 총력”

문화재청 주요 계획 발표… 4대 목표 · 15개 과제 제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지정문화재를 전수조사한다. 또한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3월 11일 발표했다.

4대 전략 목표와 15개 과제를 제시한 문화재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역사문화자원(비지정문화재) 전수조사 착수’다.

‘역사문화자원(비지정문화재) 전수조사’는 문화재 보존 · 관리 체계를 ‘목록주의’로 전환하기 위한 첫 작업으로 역사문화자원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이뤄진다.

이는 문화재청이 지난해 6월 개청 20주년을 맞아 개최한 문화유산 미래정책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한 중점 계획이다. 당시 문화재청은 “현재의 지정 위주의 문화재 관리가 아닌 목록주의적 관리 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전수조사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지정문화재 중 훼손과 멸실 우려가 높은 건조물과 역사 유적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조사는 올해 대구 · 경북 · 강원 지역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총 233억 원이 투입돼 5년간 진행된다. 이를 통해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 관리 및 활용을 위한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는 게 문화재청의 계획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비지정문화재 현황을 파악하고 목록화 해 문화재 정책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활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리가 시급한 역사문화자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리 사각 비지정문화재 조사
문화유산 관리체계 전환 진행
목조문화재에 첨단 방재 설비
안료 등 전통재료 복원사업도

이어 “조사된 자료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들과 공유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지정문화재를 관리 ·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주요 업무 과제로 제시했다.

‘연등회(Yeondeunghoe: Lantern Lighting Festival in the Republic of Korea)’는 부처님 오신날인 음력 4월 8일에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거행되는 불교 행사로, 삼국시대로 그 연원이 올라갈 정도로 오랫동안 계승된 불교 의례다.


지난 2017년 진행된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 제등행렬 모습. 행렬의 부처님 장엄등은 한마음선원에서 제작한 것이다. 연등회의 인류무형유산 등재는 오는 12월 결정될 예정이다.

실제,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경문왕 6년(866년)과 진성여왕 4년(890년)에 ‘황룡사에 가서 연등을 보았다(看燈)’라는 기록이 전해져 오랜 시간 한반도에서 거행된 행사임을 알 수 있다.

연등회는 연등법회와 연등행렬, 회향(廻向) 등으로 이뤄졌으며 1975년 ‘부처님오신날’이 국가공휴일로 제정되면서 오늘날에는 중요한 문화행사로 발전했다.

지난 2012년에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으며 ‘연등회 보존위원회’에서 전승교육을 맡아 △전통등 제작 강습회 개최 △지역봉축위원회 연계 연등회 행사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체계적 전승과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8년 4월 유네스코 본부에 연등회의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고, 등재를 위해 연등회보존위원회, 관계 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연등회의 인류무형유산 등재는 오는 12월 열리는 제15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전국 주요 사찰들을 순례할 수 있는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도 시행된다. 국내 세계문화유산 · 인류무형유산을 중심으로 ‘방문코스’가 구성됐으며 4월 말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캠페인에 들어갈 예정이다.

불자들이 주목할 만한 코스는 단연 테마 코스의 ‘수행의 길’이다. 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에 포함된 마곡사 · 법주사 · 대흥사 · 선암사 · 송광사 · 통도사 · 해인사 · 부석사 · 봉정사를 순례하는 코스다.

또한, 불국사와 석굴암을 시작으로 봉정사로 마무리 되는 ‘천년 정신의 길’과 마곡사에서부터 미륵사지, 왕궁리유적으로 이어지는 ‘백제고도의 길’도 눈길을 끈다.

문화재청은 “각 코스별로 주변 관광정보, 이벤트 등을 연계해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캠페인 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료와 아교 등 전통재료 복원을 위한 사업도 이어진다. 올해에는 전통 단청 안료 제법 복원 위한 연구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범어사 명학당, 구례 연곡사 동 승탑비 종각, 영주 흑석사 심검당 등을 시범 대상으로 선정해 전통단청 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기화재 예방 ICT(정보통신기술) 시스템을 처음으로 설비하고 주요 목조문화재 364개소에 소화전, CCTV 등 방재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지난 60여 년간 유지되어 온 문화재 보호 체계 변화의 필요성과 함께 문화유산을 일상적인 여가공간으로 누리고자 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 · 활용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근대 불교잡지 ‘불교’ 문화재 된다

문화재청 9일 등록 예고
동국대 중앙도서관 소장본
근대불교사 연구 중요자료

동국대 중앙도서관에 소장 중인 근대기 불교종합지 〈불교〉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다. 조계종 원효사가 소유하고 있는 ‘광주 舊 무등산 관광호텔’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대표적 불교 종합지인 〈불교〉 등 4건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하고 조계종 원효사 소유 ‘광주 舊 무등산 관광호텔’과 ‘김천 나화랑 생가’ 등 3건을 문화재로 등록했다”고 3월 9일 밝혔다.

문화재로 등록 예고된 〈불교〉는 일제강점기 간행된 대표적인 불교 종합 잡지로, 1924년에 창간돼 1933년(통권1~108호)에 폐간됐다. 이후 속간으로 1937년부터 1944년(통권1~67호)까지 발행됐다.

〈불교〉에는 당시 불교계 주요 인사들의 기고문을 중심으로 편집해 일제강점기 당시 불교계 현실 인식이 담겨 있다. 특히, 1931년부터는 만해 한용운 스님이 편집 겸 발행을 맡아 ‘정(政) · 교(敎)를 분리하라(제87호, 1931.9)’, ‘조선불교의 개혁안(제88호, 1931.10)’ 등의 논설을 게재해 일제의 종교 간섭을 비판했다. 현재는 동국대 중앙도서관에 소장돼 있다.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된 근대기 불교종합지 ‘불교’의 1924년 창간호 첫 페이지.

문화재청은 “해당 유물은 창간호부터 폐간호까지 전부 보존돼 있어 완결성이 있다”면서 “일제의 불교정책과 그에 대응하는 불교계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어 근대불교 연구를 위해서도 중요한 자료”라고 등록 예고 이유를 밝혔다.

문화재청은 〈불교〉와 함께 김천고 본관과 舊 과학관, 수원시 급수탑 등 4건을 문화재 등록 예고했으며,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해 최종 등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등록문화재 제776호로 등록된 ‘광주 舊 무등산 관광호텔’은 한국전쟁 이후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설악산, 서귀포, 무등산 등 국내 명승지에 건립한 관광호텔 중 유일하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건축물로 관광사적 의미가 크다.

또한 5 · 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임시 피난처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지역의 근현대사적 가치도 있다. 현재는 조계종 원효사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국가등록문화재 제775호 ‘김천 나화랑 생가’는 광복 후 한국 대중음악계를 대표하는 작곡가인 나화랑(본명: 조광환)이 태어나 자란 곳으로 과거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어 문화재로 등록됐다.

문화재청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광주 舊 무등산 관광호텔’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등과 협력해 체계적으로 보존 ·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한문아카데미 연수생 추가 모집

심화 · 기본과정 27일까지 접수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 불교한문아카데미에서 1학기 ‘심화과정’과 ‘기본과정’ 연수생을 추가모집 한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부시책과 학교정책이 반영된 결과다.

한문불전 역경인재 양성을 위한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문아카데미는 한문불전 번역의 기초를 쌓을 수 있는 ‘기본과정’과 역경전문가를 배출하는 ‘심화과정’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과정별로 매학기 마다 15주 동안 진행되는 강좌로 이뤄진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한 과목씩 5강좌가 운영되며 10강좌(30학점) 이상 이수하면 수료할 수 있다. 일반수강생은 기본과정 강좌 가운데 한 과목 이상 개별 수강이 가능하다.

원서 접수는 3월 27일까지며,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선발연수생에 대한 면접 및 필기 전형은 개별적인 일정 협의 후 진행된다.

지원자는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문아카데미 홈페이지(abc.dongguk.edu/academy)에서 입학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자기소개서와 대학(원) 재학증명서(혹은 수료증명서)를 이메일(hanmun@dongguk.edu)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신성민 기자

국립중앙博 31일까지 ‘나도 큐레이터’ 공모

누구나 집에서 문화유산 사진들을 모아 전시기획을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오는 3월 31일까지 전국국 · 공 · 사립과 대학박물관 등의 소장품을 공개하고 있는 e뮤지엄을 통해 ‘집에서 전시기획 한다. 나도 큐레이터’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3월 1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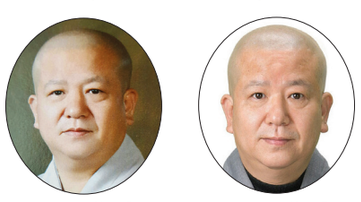
참가 주제는 자유이며 e뮤지엄에 접속해 회원가입한 뒤 참여할 수 있다. 전시기획의 독창성과 완성도 등 참가자가 작성한 제목과 설명에 따라 구성이 잘 됐는지를 평가하고 최우수상 4명, 우수상 10명, 장려상 50명을 선정해 경품을 제공한다. 신성민 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상담(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 매주 수요일 밤 10-11시

제 103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현재 강의중 접수가능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공공원 뒷편 ☎(02)741-0495~6